

출판계에도 불어닥친 대중스타 열풍

문학작품에서 인물평전까지 다양하게 선 뵈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익숙해진 대중 문화 스타들이 책을 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기관리의 하나로서 홍보용 소책자나 화보집을 만드는 예는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에세이는 물론 소설이나 시에까지 영역을 넓혀 말그대로 '저자'의 대열에 이들 대중문화의 주역들이 속속 진입하고 있는 것. 이러한 현상은 일련의 무명저자들의 책들이 많아지면서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책의 저자에 대한 기존의 엄숙주의적인 고정관념을 깨는 데도 한몫을 하는 한편, 고급문화와 저급문화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후자로 밀려왔던 대중문화를 '문화'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다시 검토하고 새롭게 자리매김하려는 이즈음의 대중문화 논의와도 맞물리면서 주목을 끌게 한다.

다양한 장르 섭렵, 베스트셀러 되기도

현재 시중의 어느 서점에 가봐도 이들 '스타'의 책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들 중에는 베스트셀러 목록에까지 오른 책들도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에세이류.

항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최불암시리즈'의 주인공인 탤런트 최불암씨의 「그게! 무엇이 관데」(시와시학)는 국내 최고의 관록있는 연기자로서 자신의 지난 삶을 담담히 회고하는 '자전예세이'다. 문단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얘기지만 전후 문인, 예술가들의 아지트였던 명동 '은성' 주점을 운영했던 모친에 대한 추억을 비롯해서 데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희노애락이 특유의 친근감을 살린 문체에 담겨 있다.

인기 아나운서로 각광받고 있는 이계진씨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우석), 이숙영씨의 「애첩기질 분처기질」(문학사상사) 등도 몸담고 있는 매체의 특성을 십분 활용해 방송 뒷이야기와 자신들의 방송관, 직업관이 개성있게 펼쳐져 있다. 연극배우 김명곤씨와 손숙씨도 틈틈이 써왔던 에세이, 콩트, 칼럼 등을 모아 각각 「꿈꾸는 통소쟁이」(고려원)와 「손숙의 여성수첩」(전원)을 펴냈다.

소설집이나 시집을 통해 본격적인 작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수 김수희씨와 개그맨 서세원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설을 발표하는 한편 영화 시나리오까지 써내는 재능을 과시한 바 있고, 최근 탤런트 김수미씨가 장편소설 「너를 보면 살고 싶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익숙해진

대중문화 스타들이 '저자'의 대열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에세이는 물론 소설이나 시에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이들의 활동은

대중문화를 '문화'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다시 검토하고

새롭게 자리매김하려는 이즈음의

대중문화 논의와도 맞물리면서

크게 주목된다.

(샐터사)를 펴내 그의 인기로 값하는 화제를 낳기도 했다.

자작곡 가수 하덕규, 지에는 각각 시집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청맥), 「선택」(영광)으로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노랫말의 연장으로 묶어낸 이들 작품들은 호소력 있는 서정성이 크게 어필했다는 평가를 얻기도. 이선희씨도 시집 「떠나는 자만이 사랑을 꿈꿀 수 있다」(상산)를 펴냈고, 가장 최근에는 흔히 '한국의 음유시인'으로 불리는 조동진씨가 그동안 써온 노랫말과 단상들을 모아 시집 「우리 같이 있을 동안에」(청맥)를 선보여 기대를 모으게 한다.

이밖에도 연극배우 이진수씨나 탤런트 안옥희씨처럼 공식적인 데뷔절차를 거쳐 정식 문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스타저자' 붐에 편승해 '어린이스타'들의 책까지 등장하고 있다. 아역배우 19명의 신변잡기를 모은 「스타는 내 친구」(김다혜 외, 명서원)를 비롯해 어린이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작품들도 주인공의 이름을 빌어 아동도서로 선보이고 있는 것.

평론가들의 인물평전도 선보여

이와 같은 '스타저자'들의 책 말고도, 그들이 직접 집필하지는 않았지만 '대중스타론'의 형식을 띤 인물평전도 선보이고 있다. 예의 대중문화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던 이 책들은 이제 각 분야의 평론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대중문화평론가'들을 탄생케 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80년대 후반 출간된 「김민기」(김창남), 「정태춘」(이영미, 이상한



김현식씨, 최불암씨, 이계진씨.



김수미씨, 강수지씨, 이숙영씨.

울), 그리고 최근의 「사랑의 가객, 김현식」(육상호 편저, 솔)에 이르기까지 주로 이른바 '대학가수'나 '언더그라운드가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최근들어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출판경향은 단순히 기존의 저자 영역의 확대라는 출판계 내적 의미 이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최근에 출판된, 또한 현재 가장 대중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두사람의 책을 통해 '스타저자'들의 책이 지니는 그 상징적 의미를 추적해볼 수 있다.

가수 강수지씨의 「어두운 마음에 불을 켜 이름 하나」(들꽃세상)와 얼마전 타계한 가수 김현식씨의 「사랑의 가객, 김현식」이 바로 그것들로, 두 인물의 이미지와 연예활동 방식, 책의 구성과 내용에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룬다.

「어두운 마음에...」는 평소 방송에서 어필했던 주인공의 매력을 최대한 살린 감각적인 화보와 팬들의 스타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개인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 방면의 책들이 갖는 특징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이 책은 가장 대중적인 스타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 지닐 수밖에 없는 한계, 즉 저자나 출판사의 인기를 염두에 둔 상업적 편집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대중문화, 대중스타에 대한 새로운 상품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시인에 의해 그 작품성이 인정된 노랫말과 그의 스타성의 열쇠가 되는, 그래서 현재 대중문화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집약하고 있는 한사람의 특징적 면모를 세심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단순나열형의 보여주기식 책들과는 확연

하게 구분된다.

본격적인 대중문화 논의 기대돼

「사랑의 가객...」은 사후에 더욱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수 김현식씨에 대한 본격적인 평전으로, 그가 가요계에서 차지했던 독특한 위치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끌게 한다. 대중매체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불리우고, 그러면서도 사회성 짙은 노래를 불렀던 것도 아닌, 이 세 영역의 중간 지점에 존재하는 한 가수를 통해 현재의 대중음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있는 이 책은 '대중가수'라는 호칭을 지우고 나면 어느 지명도 있는 인물의 평전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사랑의 가객'이란 명명으로 그의 '소리'를 우리나라 가요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위에서 분석하고 있는 문학평론가 임우기씨의 글은 이제 '대중문화에 대한 솔직하고도 분석적이며 의미있는 사유들을 견인해 낼' 시기가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이 책은 해당 출판사가 의욕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대중문화총서'의 첫권으로 앞으로 더욱 심도있게 전개될 대중문화론에 기대를 모으게 한다.

스타들이 갖는 '대중성'에 대한 폄하의 시선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의 파급력이 점점 커지면서 드디어 완강했던 '순수문화' 종사자들까지 흡수할 정도로 급격히 변화한 것이 사실이다. 출판계에까지 밀어닥친 이들의 위력은 앞으로도 계속 그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예의 두 책이 대중문화 스타들에 관한 책의 양 극단을 대표한다면 이와 함께 그 사이를 메꾸는 다양한 형태의 출판물이 속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정소연 기자